



# 프랑스 석유기업과 석유정책

아래 내용은 순간석유정책 10월 5일자에 실린 내용중 발췌·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 메이저 합병 제2탄

프랑스를 대표하는 석유회사 「Totalfina」와 프랑스 최대석유회사 「Elf Aquitaine」의 합병이 마무리되었다. Total은 '99년 6월 14일, 벨기에의 Petrofina와 합병하면서 「Totalfina」로 사명을 바꾸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5일, Elf Aquitaine 인수계획을 발표했고, 9월 13일, Totalfina와 Elf는 우호적 합병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합병은 주식교환방식으로 실시하는데 Elf주식 13주에 대해 Total주식 19주를 교부한다. 새회사의 Top에는 Total의 데마레 회장이 취임하고 Elf의 자프레 회장은 주식교환 종료시점에 사임한다.

작년말, 메이저의 대형합병이 이어져 Exxon-Mobil, R·D·Shell, BP Amoco 등 수퍼메이저 3사 체제가 정비되었다. 국제석유재편 제1막이었다. 제2막이라 할 수 있는 Texaco와 Chevron의 합병교섭이 6월에 암초에 부딪혔다. Totalfina Elf Aquitaine의 합병 합의로 제2막이 오른 것이다.

Totalfina와 Elf의 합병은 단순히 증견메이저간 재편이라고 볼수만은 없다. 프랑스정부는 Elf라는 'Golden Share'를 보유하고 있고 Elf주식 10% 이상의 인수에는 거부권을 발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 Totalfina가 Elf의 인수계획을 발표한 7월 5일, 정부는 '양사의 제휴는 국익

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이유는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조업상황과 영업실적>

	원 유		천연가스		영업실적(1998)		
	매장량 백만Bbl	생산량 천b/d	매장량 10억cf	생산량 백만cf/d	매출액 백만\$	순이익 백만\$	종업원수 천명
Exxon	6,790	1,599	42,129	6,339	100,697	6,370	79.0
Mobil	4,105	927	16,956	4,556	47,678	1,704	41.5
합계	10,895	2,526	59,085	10,895	148,375	8,074	120.5
R·D·Shell	9,681	2,328	56,131	8,001	93,692	350	102
BP Amoco	9,272	1,888	31,960	5,805	68,304	3,260	96.7
Arco	2,669	641	84,720	1,910	13,195	452	18.4
합계	11,941	2,529	116,680	7,715	81,439	3,712	15.1
Total	4,833	532	N.A.	1,488	27,058	985	57.2
Petrofina	N.A.	N.A.	N.A.	N.A.	11,793	508	14.5
Elf	2,343	795	6,193	1,312	35,864	600	85.0
합계	7,176	1,327	6,193	2,800	74,715	2,093	156.7

(주) 매장량, 생산량은 '97년말 기준. Total의 원유매장량은 천연가스 포함.

(자료) 石油開發資料, Fortune등에서

### 〈Totalfina의 하류부문〉

	Totalfina	Elf	합 계
정제능력(1,000b/d)	1,649	816	2,465
그 중 프랑스	623	448	1,071
기타 유럽	670	337	1,007
석유제품생산량(1,000b/d)	1,895	1,035	2,930
주유소수	13,509	5,058	18,567
프랑스	3,367	2,849	6,216
이탈리아	1,354	0	1,354
독일	545	605	1,150
영국	959	518	1,477
미국	2,375	0	2,375

이러한 불개입 선언은 정부가 양사의 합병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Exxon-Mobil, 영국의 BP Amoco의 탄생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석유기업이 더욱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석유기업이 열세에 서게 된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석유회사, Totalfina와 Elf Aquitaine을 통합해 Exxon-Mobil이나 BP Amoco에 대항할 수 있는 'National Champion'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볼때, 합병의 배후에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시책에 의한 Total의 설립

Total은 1924년 3월, 판칼레 수상의 국영석유기업 창설 의지로 민간금융기관, 원유생산, 정제 등 관련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해 '프랑스석유(CFP)'로 설립되었다.

당시 유럽 석유시장에서는 Standard Oil(현 Exxon), R·D·Shell, Anglo Iranian(현 BP Amoco)등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프랑스로서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해 국내석유시장을 지배하게 할 목적이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Total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러시아 혁명전 구정권에 대한 프랑스 민간금융기관의 대부금을 소비에트정부로부터 석유로 결제받기 위한 석유회사가 필요하다는 금융자본의 요청도 있었다.

Total과 합병한 Petrofina는 1920년 2월에 설립되었다. 당초 사명을 '벨기에 페트레스(석유)·피난셀(금융)·회사'라고 칭했지만 후에 이것을 줄여 Petrofina로 개칭했다. 벨기에의 은행은 루마니아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벨기에에는 제1차대전 전의 전리품으로 루마니아에서의 독일의 석유이권을 취득했다. Petrofina는 크레디 모비리에, 방크 드 유니온 파리젠느 등 프랑스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설립목적은 프랑스석유와 같이 루마니아의 채권회수와 석유이권의 운용이었다.

제1차대전에서 터어키가 패전해 그 영토였던 메소포타미아 지방(현 이라크)은 영국의 위임통치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석유이권을 전리품의 형식으로 승전국(미, 영, 불)간에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22년부터 28년까지 6년간에 걸친 힘든 교섭 끝에 이라크의 석유이권은 미, 영-네덜란드, 프랑스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①R·D·Shell, ②Anglo Iranian, ③프랑스석유, ④뉴저지 스탠다드 및 소코니 바쿰 등 4자가 지분 각 23.75%, 그 외 C·S·구르벤키안이 5% 참가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석유는 중동에서 프랑스의 석유이권을 한꺼번에 갖게 되었다. 1931년에 프랑스정부가 35% 출자, 그리고 40% 의결권을 취득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석유회사로서 Seven Sisters에 이은 8번째 메이저가 되었다.

제2차대전후 프랑스 국내와 중동지역 외에 북해, 인도네시아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탐광, 개발, 생산을 추진하여, 정제·수송·판매의 통합일관경영을 해오고 있다. 석유화학, 원자력, 석탄, 태양에너지 등 다변화도 추진해 왔지만 1983년에 정부의 석유화학사업 통합방침에 의해 동부부분을 Elf Aquitaine에 양도했다. 85년에는 사명을 'Total·CFP'로 변경했다.

90년에 취임한 쥘르크 회장은 Total의 Major 복귀, 더욱 적극적인 국제화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의 대개

혁을 실시했다. ① 탐광·생산, ② 정제·판매, ③ trading 및 중동(LNG 포함), ④ 자금운용, ⑤ 금속광산·원자력, ⑥ 화학 등 6개 부문으로 정비하고 사명을 Total로 바꿨다.

프랑스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방침에 의해 91년부터 96년에 걸쳐 Total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 보유비율을 31.7%에서 1%로 줄여나갔다.

Total의 중핵사업지역은 중동, 북해, 동남아시아이지만 이외 지역에서도 원유, 천연가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97년말의 매장량(석유환산)은 48.3억배럴, 그 중 48%가 중동지역이다. 같은 해의 석유생산량은 53만 2천b/d, 55%가 중동이다. 천연가스 매장량 12.9조입방ft, 생산량은 14.9억입방ft/일, 동남아시아가 40%, 유럽이 34%이다.

95년 5월에 취임한 데마레 회장의 장기계획은 현재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 합계 80만b/d(석유환산)를 2005년에 125만b/d(1.6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Petrofina와 합친 97년 기준 생산량은 동 105만 b/d이다.

## Elf, 적극적인 정책추진

Elf Aquitaine은 1939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Pyrenees산맥의 산마르세에 있는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해 1937년에 설립된 '남프랑스석유개발센터(CRPM)'를 조직 변경하여 설립된 'RAP(석유경영자치공사)'가 시초이다.

1945년에 석유·가스개발기업 투자회사 'BRP(석유 탐사국)'가 설립되었다. 1966년에 RAP와 BRP는 정부가 100% 출자한 「에랍」(석유탐사공사)로 통합되었다.

한편, 1941년에는 정부가 49%, CFP가 51% 출자한 'Aquitaine석유'가 설립되었다. 동사는 전후 1950년대에 아프리카의 구 프랑스식민지에 진출해 알제리, 가봉 등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발견, 폼비드 내각의 공업 장관이었던 거물, 샤란트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그리고, 1976년에 에랍이 주정부지분 비율을

54%에서 67%로 늘려 사명을 'Societe National Elf Aquitaine(SNEA)'로 바꿨다.

89년에 취임한 프리잔 회장은 침체되어 있던 Elf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는데,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해외 하류부문 확장에 주력했다.

93년에 취임한 자프레 현 회장은 사명을 SNEA(Societe National Elf Aquitaine)에서 'Elf Aquitaine'으로 변경하면서 'National'을 빼서 민간기업임을 강조했다.

Elf의 매장량은 97년말에 원유 23억Bbl, 천연가스 6조 1,700억ft이다. 생산량은 원유 795천b/d, 천연가스 13.1억입방ft/d이다. 원유생산량중 아프리카가 510천b/d로 64%, 유럽이 256천b/d로 32%이다.

정제·판매사업은 유럽과 서아프리카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노르웨이의 '사가 Petroleum'을 인수하려 했지만,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히드로'에 먼저 팔렸다.

석유화학부문에서는 Total과 프랑스최대 알루미늄 회사인 '페시네'의 석유화학부문을 인수한 프랑스 유수의 화학업체이기도 하다.

## 프랑스의 석유정책

정치·경제면에서는 국가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이다. 프랑스의 사회, 경제양식을 'dirigiste'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전상 의미로는「통제경제적」이라는 의미이다.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dirigiste model이 적용되고 있다. 1924년의 프랑스석유(현 Totalfina) 설립은 R·D·Shel, Standard Oil, Anglo Iranian 등 영국·미국의 대형석유 회사로부터 국내시장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법적 뒷받침으로 1928년에 「구석유업법」이 제정되었다.

「구석유업법」에 의한 통제는 EC통일시장 진전 등을 배경으로 1970년대부터 점차 철폐되어 92년 7월 「신석유업법」으로 개정, 93년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구석유업법은 프랑스 석유정책의 기초로서 업계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의 석유정책, 석유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석유업법의 정책이념은 「석유업은 안전보장상 원래, 국가가 해야되지만 민간업자에 특별허가를 부여해 대행(위탁판매)시킨다」라는 것이다. 신규참여 제한, 민족자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석유의 수입, 정제, 수송, 판매 전부분에 개입하여 석유공급 안정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수입허가제도와 가격규제제도 2대 항목으로 통제했다. 전자는 월 300톤 이상의 석유수입은 정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한데, 특별허가 기간은 원유 20년, 제품 12년 이내이다. 특별허가업자는 비축의무를 지는 동시에 정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가격규제는 정유공장 출하가격과 제품소매가격의 두가지로 실시되었다.

규제는 EC통합을 위한 국내석유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석유가격적인하 차원에서 점차 철폐되었다. 1976년에 일반 소매업자, 도매업자의 제품수입이 허가를 받았고, 79년에는 수입할당이 철폐되었다. 76년에는 중유의 가격규제, 78년에는 생산자 가격통제가 해제되었다. 85년에 휘발유 가격이 자유화되고 86년에 가격 완전자유화가 시행되었다. 86년에 정제업자의 프랑스령내에서의 정제의무(90% 이상), 수입업자의 EU 역내 정유공장으로부터의 인수의무(80% 이상)가 같이 폐지되었다. 87년에는 독립계 석유제품수입업자의 수입허가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92년의 신석유업법은 원유 및 제품 수입에 대한 정부 허가제를 철폐했다. EU의 세제에 맞춰 석유업자를 인정(認定)보세창고업자, 등록업자(보세품을 EU가입국에서 프랑스에 반입하는 시점에서 납세), 비등록업자(반입하는 보세품의 선적전에 납세보증을 차입) 3개 업자로 구분했다.

석유비축의무외에 석유통계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정유공장 건설, 폐쇄, 개조에 관한 계획은 전부 정부에 신고가 필요했다. 정유공장 폐쇄는 정부가 1개월 이내에 이를 제기해 금지할 수 있다.

정제세어는 대략 Totalfina 31%, Elf 22%로 2개사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Shell, Esso가 각 13~14%,

BP가 10% 이하, Mobil, CRR이 각각 3~4%이다.

주유소시장도 hyper/supermarket의 저가판매로 판매업자계열 주유소는 수익이 악화되어 폐쇄에 처하게 된 곳이 늘고 있다. 주유소수는 85년 32,000개에서 96년에는 18,000개로 10년간 반정도 줄었다.

주유소수에서는 정제업자가 56%로 반이상, 판매업자가 21%, hyper/supermarket가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휘발유 판매세어는 정제업자가 48%, 판매업자계열이 3%, hyper/super가 49%로 정제업자를 웃도는 세어를 확보하고 있다.

## National Champion

Totalfina, Elf Aquitaine과 같이 프랑스는 전략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신규참여를 규제하고 민족자본을 옹호하여 왔으나, EU통일시장 확대로 신규참여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적인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이 속속 밀려오고 있다.

요즘 프랑스의 우량기업 경영자는 독자생존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Totalfina의 Elf Aquitaine과의 합병도 이러한 배경과 같은 맥락이다. BP Amoco-Arco, Exxon-Mobil, R·D·Shell의 3강 체제가 굳어지면 프랑스 중심의 EU시장을 비롯해 국제시장에서 이들 3개사의 세력이 강해진다.

4위 이하의 석유기업이 그들과 경쟁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세는 어렵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스크 히드와 Saga Petroleum이 인수교섭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정부로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석유기업을 잃을 수는 없다. 미국, 영국의 석유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석유시장, EU석유시장에 있어서 프랑스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문제와도 연결된다. Totalfina와 Elf의 합병은 국제석유재편에 대한 지구책임과 동시에 프랑스정부의 석유산업에서의 「National Champion」을 보유하는 전통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